

Dec.
In
Kandal

Phlieng

느릿느릿 깐달팀의 12월이야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Contents

Atti week	· 002
스텝 어덜트와의 인터뷰 쌤못 비비	· 004
캄보디아 YMCA 비비	· 006
YDP활동	· 008
청소년 캠프 준비	· 013
전기수와의 만남 통통	· 015
CDP활동	· 016
알송달송 부스스 어른어른 이니	· 018
바탐방 지역 방문	· 019
End poverty campaign	· 021
유스들과 함께 한 시간 소빳	· 024
350ppm 캄보디아비어 박스의 재탄생 통통	· 026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 027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니	· 028
이야기 모임, Jam!	· 030
Mat와의 만남 쌤못	· 031
연말 휴가 소빳	· 033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한다 이니	· 035
부끄럽지만 해보는 발 소개	· 037
에세이	· 038
그리고 남은 이야기	· 043



December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Staff meeting	2	3	4	5	6
		← 바탐방 →				
7	8 Meeting with Mr.meng 초등학교 답사 영어 수업 ←	9 Sports club 한국어 수업	10 인권의날 캠페인 참여 Atti week	11 한국요리수업 Eco club 한국어	12 한국요리수업 쿠��파티	13 한국요리수업
				→		
14	15 CDP 활동 영어	16 CDP 활동 한국어	17 CDP 활동 영어	18 빈곤퇴치캠페인 한국어	19 캄보디아Y 방문 End poverty Campaign 6th	20
21	22 빈곤퇴치캠페인 영어	23 머쉬룸 하우스 한국어	24 크리스마스 이브 Youth들과 파티	25 크리스마스 파티 With 피룸 유스친구들과 드림랜드	26 머쉬룸 하우스 2기 캄보디아 이가영 단원 만남	27
28	29 CDP site 둘러봄 영어	30	31	← Kep 휴가 →		

| Atti week |

이달에는 바탐방 방문 일정으로 둘째 주에 쿠킹파티와 환경클럽을 진행함



· 스태프와의 미팅:

YDP 스태프 Mrs. Phirum과 Mr. Thann이 12월 1일 미팅에서 12월 2일에 바탐방에 기관방문으로 가게 되었다며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았다. 갑작스러운 제안과 예정된 아티위크 일정이 있기도 했지만 중간평가 때 우리가 먼저 바탐방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고 다른 캄보디아 NGO단체의 유스 프로그램 이야기가 들을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 CDP 스태프 Mr. Samnang이 아티위크를 둘째 주로 미루는 게 어떻겠냐는 고마운 제안으로 함께 바탐방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른 재정 이야기도 하였다.

· Mr. Meng과의 미팅:

현재 카리타스 유스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시스템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에 관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캄보디아팀 전기수와 라영석 간사님을 중심으로 미술반 유스들이 만든 크리스마스카드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돕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현지에서 활

동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게 전부여서 상황과약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Mr. Meng에게 미팅을 요청해 그동안 라온아띠 사무국이나 캄보디아 전기수를 통해서만 들었던 재정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해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요청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우셨는지 자꾸 도중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등 말을 반복해서 조금 혼란스러웠다.

· 환경클럽 '판다이쓰러싸얌(지구는 아름답고 예쁘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더 환경적으로 보내기 위해 재활용선물을 만들어 보았다. 못 입는 옷들과 빈 병, 떨어진 나뭇잎들을 이용해 인형,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을 만들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녹색크리스마스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핸드크래프트 시간으로 오해한 친구들이 있기도 했지만 흥미로



운 기획과 유스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스 친구들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같이 활동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야심차게 피구와 농구게임을 준비한 스포츠클럽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촛불대화를 준비한 평화클럽도 아쉽게 유스 친구들의 불참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홍보도 많이 했고 몇몇 친구들은 기대감을 표하며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갑자기 생긴 자기들의 일정이나 연말이라 바빠서 오지 못해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았다. 하지만 덩그러니 유스들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녁 늦은 시간 쓸쓸히 집으로 돌아온 후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팀원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재밌는 영화를 다섯 명이 오순도순 보았다!! 고맙다!!!!)

· 지난 달 레스토랑 사업미팅에 문화교류를 위해 한국음식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에 레스토랑 미팅에서 만난 두 명의 유스 친구들과 3일에 걸쳐 한국 요리 수업을 했다.

소불고기버섯볶음, 오징어무국, 부추전, 김치, 김치전, 계란국 등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었는데

사업 미팅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또 중간 중간 캄보디아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도 좋았다. 조리하기 쉬운 요리들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캄보디아에 없는 재료들을 대신해 구하기 쉬운 재료로 대체하느라 고생한 권희, 여인 팀원에게 너무 고맙고 이 수업이 레스토랑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이 달의 쿠킹파티엔 앵콜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김밥’으로 메뉴를 정했다. 유스 친구들도, 스태프들 중에서 이미 요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가 많기도 해서 아미들이 만들어 나누어 주기보다는 속 재료를 준비해 각자 개성대로 김밥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 전에 개개인에 따라 잘 못 먹는 매운 맛, 짠 맛 등으로 인해 몇몇 유스 친구들은 쿠킹파티를 더 즐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으니 반응도 좋고 참여도도 이전보다 높았고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는 시간이 서로에게 큰 즐거움을 되었던 것 같다.

대신 캄보디아 음식을 준비할 여건이 안 되어 한국 음식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처음 기획했던 문화교류의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 같다.

부록 #1 카리타스 스텝 어덤과의 인터뷰
어덤, 왜 그렇게 덤덤한가요?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어덤은 비행기 연착으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우리의 장황한 설명에도 단 한마디, "OK" 라는 덤덤한 대답을 했을 뿐이다. 얼굴에 "어쩌라고"를 문신한 남자, 가끔 웃이 없냐는 농담을 들을 정도로 윗몸을 까고 다니는 남자, CDP 대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모든 일을 똑딱거리며 잘 해내는 남자, 이 매력적인 남자. 필바보에 항상 맥주와 해먹을 찾는 옆 집 형 같은 그의 덤덤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카리타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운전 기사 역할도 하고, (YDP 등에서) 사무 보조도 하고 있다.

- CDP일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CDP와 운전 일 중 무엇이 더 좋나요?
둘 다 좋다. (당황해서 하나만 골라 달라고 말하자) CDP가 좋다. YDP일도 좋고.

- 왜 카리타스에서 일하나요?
그건 내가 카리타스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카리타스에서 공부를 마친 뒤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카리타스는 나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카리타스를 사랑한다.

- 카리타스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하는게 좋다. 또, 카리타스에는 여러 지방에서 여러 문화와 생각들을 가진 유스들이 오는데, 그런 이들과 일하는 것도 즐겁다.

- 취미가 뭔가요?
배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

- 왜 항상 덩덤한가요?
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음~ 하고 말잖아요) 들었다. 들었는데, 뭐 어쩔 수가 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 왜 예쁜 여자를 좋아하나요?
(옆에 아내 레악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작게 속삭였는데 어둠이 되려 귀찮다며 엄침

크게 대답함) 남자든 여자든 예쁜 여자를 보면 보고 싶어진다. 오~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오~ (몇 번이나 이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 우리가 부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방해가 되거나 미안하지는 않나요?
전혀, 전혀. 시간만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다. 그것도 내 일이다.

- 짬뽕이 집 문을 안에서 잠그는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별로 신나진 않았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

- 비싸이(딸)와 레악(아내)이 당신의 삶과 일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나요?
잘 모르겠다. 셀 수가 없다. 음..근데 영향이라면, 좋은 쪽 아니면 나쁜쪽? (질문자들이 당황하자) ㅎㅎㅎㅎ.

-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마다, 공항으로 운전해서 늦게까지 기다려야 해서 아씨들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별로, 딱히 생각이 없다. 승객들은 체크하고 짐 옮기고 할 일이 많다. 걱정 마라. 아무렇지 않다.

- 꿈이 뭔가요?
집 한 채, 차 한 대 두고 딸이랑 아들(계획 중) 돌보면서 사는 것.

- 어둠에게 술 이란?
단지, 행복할 때, 휴일에, 친구 만날 때, 미팅 끝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2-3잔 씩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Y를 소개합니다

활동 첫 보고서, 9월 즈음에 읽을만한 내용이 왜 12월 보고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하면 캄보디아 간달 팀은 캄보디아 Y측 사정으로 다른 기관인 카리타스에서 활동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간사님인 수원 관영석 간사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말로만 들던 캄보디아 Y 방문을 결심했다. 리온아피의 존재는 아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 걸었건만, 방문 해도 되냐는 말에 내일 아침 8시에 와도 된다는 화답을 받은 우리!

아침 일찍부터 찬 바람맞아가며 떨리는 마음으로 캄보디아 Y를 찾아간 12월 19일, 그 날을 기억해본다.



<캄보디아 Y의 대표적인 활동 소개>

“길 위의 아이들” (street children)

캄보디아 Y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정환경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를 주워야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 크메르어, 수학 등의 수업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캄보디아 Y 건물 외에 총 두 군데의 센터를 운영하여 62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총 2년 과정을 끝내고 나면 공립학교로 다시 다닐 수 있게 돕고 공립학교를 다닐 때는 준비물이나 식사 등은 계속해서 지원한다. 두 곳의 센터를 방문하면서 몇몇 아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웃음을 배달합니다” (Home based training)

Y에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웃음을 배달한다’라고 말했다.

독거 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에 직접 방문을 하여 그 분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앞에서 말했듯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마을을 방문하면서 몇몇 어르신들의 집에도 방문을 하였는데, ‘웃음을 배달하는’ 프로그램답게 어르신들과 활동가들과의 관계가 무척 끈끈해 보여서 인상 깊었다.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힘든 생활 환경을 구경하듯 다녀야 하는 것에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 우리들의 방문 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무척 반가워 해주셔서 우리들도 너무나 감사했다.



“대안 여행” (Alternative tourism)

농촌 지역의 가정들과 자원봉사자 단체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다양한 지역에서 온 봉사자들이 10여곳의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돕는다. 그들의 소비로 마을의 경제도 살고 그들 또한 도시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연환경을 통해 힐링을 받는다고 한다.

그 날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몇 가지들 -



“6 : 30 AM”

아침 8시라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출발해, 근처에서 아침을 사 먹자! 던 야심찬 계획을 세웠건만..

지도에도 잘 안나온다는 캄 Y의 주소를 받아든 특특 아저씨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우리도... 아저씨도.. 서로를 쳐다만 볼 뿐...

결국 캄보디아 Y 총장님과 특특 아저씨가 두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친절하신 총장님의 설명으로 겨우 찾아가지만, 6시 30분, 춥고 배고팠던 아침 공기는 잊을 수가 없다.

(◀캄보디아 Y 건물. 아래쪽의 Y가 떨어져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총장님”

사실 처음에 총장님을 만났을 때 살짝 당황했다. 아니, 전날의 통화와 몇 통의 메일들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 만큼 친절하게, “만약 내일 못 만나게 되더라도 제가 커피 한 잔 사두고 그곳으로 가지요.” 하며, 메일 끝 마다 따뜻하게도 “god bless you” 를 붙이던 그!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무뚝뚝할 수가..

하지만 무심한듯한 그 표정으로 라온아띠가 적혀진 티셔츠 사진을 몇 장이나 찍어가고, 은근 무한 관심을 표해주신 총장님.

헤어질 때도 그 특유의 무표정으로,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못 만나면, 내년엔 한국에서 봅시다!” 라고 하셨던 총장님.

이후 우리 코디네이터 피룸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우리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아띠들은 왜 Y에 없는 거예요?” 하고 농담까지 하셨다고,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이 우리의 방문을 반겨주었다. 귀여운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에게, 우리를 위한 노래를 시키시는 선생님!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송(?)스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팀원들.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해볼까 해서 답가로 우리가 아는 캄보디아 노래를 다 같이 불러주었다.

차마 캄보디아 노래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에 그 다음 센터를 방문해서는 한국 동요인 율령이 송을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연말 휴가를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말 뜬금없게던 캄 Y 총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잠이 덜 깨채로 전화를 받았던 나는 정말 어리둥절 했다. 알고보니 우리의 목적지에 머물고 계시던 총장님께 카리타스를 통해 우리의 소식을 듣게 되어 얼떨결에 불까 하고 전화하신 것. 아쉽게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반겨주고 응원해주는 곳이 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하다.

| YDP 활동 |

카리타스 센터에서 Youth 및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목은 영어 화, 목은 한국어 수업 시간을 진행.



· 꼬마반 한국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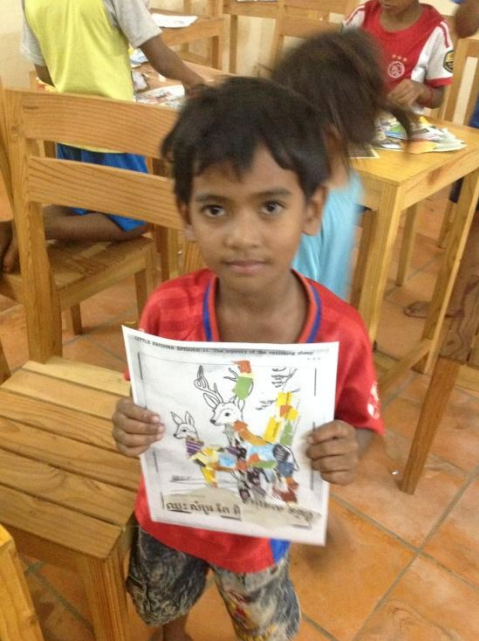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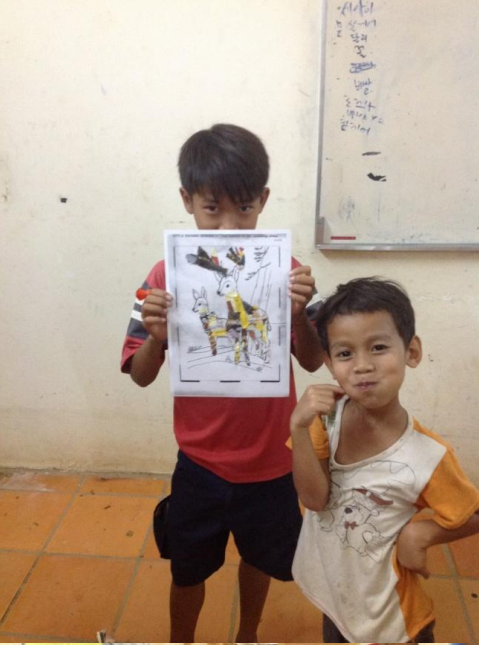
나날이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도 팀원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전문제로 그만두었던 야외활동도 즐겁게 잘 진행했고 미술활동도 처음에는 풀칠이나 그림 그리는 것을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미술활동을 즐기고 있고 특히 매 수업마다 몇몇 친구들이 뛰어난 예술 감각을 보여 무척 놀라기도 했다.

· 신문이나 잡지 등의 종이를 찢어 붙이는 미술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집중을 못하던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하였고, 모둠 수업으로 4명당 한 장씩 주어졌던 종이를 수업 중간에 급히 프린트를 더 해와 한 명당 한 장씩 더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 날 아이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을 특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었지만 수업이 끝난 뒤 폐허와 같은 반을 치우며 “오늘 이렇게 종이 다 쓰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면지

아끼고 종이를 아꼈나..” 하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고 한다.

· 한국어 수업 시간에 지난달의 고민을 바탕으로 수학 수업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 간단한 더하기나 빼기 등의 문제를 내며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아이들이 직접 칠판 앞으로 나오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아직 계산을 하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계산 개념을 이해하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었다.

· 11월에 인기가 많았던 보물찾기를 12월에도 복습 게임으로 진행했는데,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게임 방식 자체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기존의 아이들은 한번 해봐서 그런지 능숙하게 다 찾아버리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으로 끝내야 했다.



< 재활용하려고 시작했는데 더 사용해 버렸展 >



· 꼬마반 영어수업:

여전히 크리슈나 애니메이션으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크리슈나가 13화를 마지막으로 완결이 나버린 것이다!!!!!!). 11화를 볼 때쯤부터 앞으로 수업 방향에 고민하느라 정신이 붕괴될 것만 같았지만 다시 1화로 돌아가서 보는 명쾌한 해결을 했다.(설레발 죄송)

· 새로운 친구들과 기존에 오는 아이들과의 사이가 안 좋기라도 한 건지 두 쌤(?)이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패거리문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생각하다 머리가 터져버릴 때쯤에 아이들이 어느새 아무렇지 않게 섞여 노는 것을 보고 격일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음을 알았다.(설레발 죄송2)

· 지난달부터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이 워낙 많이 와서 남자반 분반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되지 못해 약간의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기존 친구들 못지않게 수업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임해 수업 분위기가 조금 더 활기차졌다.

· 29일로 영어수업을 끝마쳤다. 특별한 송별회를 하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말을 하고 아이들과 포옹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거창한 작별인사가 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 같기도 했고, 우리의 활동은 이렇게 마치지만 13기의 활동은 지속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벌써부터 13기의 출발날짜를 묻는 친구(세이하. 쓰라이폴네 집의 골목 오른쪽 세 번째 집 첫째아들)가 있어서 아주 조금 섭섭했다.

·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함께 미니운동회를 하고 다 같이 간식을 먹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으나 몇몇 친구들이 선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통명스런 태도를 취하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간식을 먹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등 팀원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심성이 나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원 부족 등으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좋은 간식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해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남았다.



▲수업 중 잡아먹을 듯 집중하고 있는 한국어 1등 소포안, 수업에 열심히 따라와주는 속치어, 한국어 여자 1등 보레이



▲한국어 수업에 잘 참가 왕 세 친구. 순서대로 소포안, 속치어, 보레이 고맙다♥♥♥

· 유스반 한국어클럽:

- 유스들이 직업을 찾으러 떠나고 인턴직을 하고 있어서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의욕이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한국어 읽기·쓰기를 진행했다. 읽기·쓰기를 가르치다 보니 클럽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지만 유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었기에 계속 진행했다. 그러다 현지 스태프의 조언으로 다시 말하기를 배우는데 집중하면서도 한국 문법도 배우게 되어 더 조화로운 수업이 되었다. 그런데 점점 소수의 인원마저 직장을 구하러, 혹은 직장을 구해 떠나 진행이 어려워져 클럽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떠난 뒤라 마지막 클럽마저 흐지부지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 유스반 영어클럽:

- 12월이 되면서 더 많은 유스들이 졸업을 했고, 기존의 고정 멤버들에서 수가 더 적어졌지만, 할 수 있을 때 까지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에 3,4명 정도의 유스들과 계속해서 클럽을 진행했다.
- 분위기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게임이나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하였다.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서 맞춰보기, 제한 시간안에 소개 많이 적어오기 등등. 그 중에서도 특히, '헥맨'은 유스들 사이에서도 무척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회화 연습 할 때는 앞에 한번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기겁하면서 '헥맨' 게임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서운)
- 12월 13일은 우리 클럽의 고정 멤버 중 한명인 유스 소포안의 생일이였다. 꼬마반 담당 아띠들도 살짝 교실에서 빠져나와 합류해서 깜짝 생일파티를 해주었다. 수가 적어진 만큼 유난히 돈독한 클럽 멤버들 모두가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주었고, 소포안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꿈을 말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아띠들의 꿈과 함께, 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등등 유스들의 꿈도 나눌 수 있었다. 모두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띠들과 공부했던 이 시간들이 작은 동기부여라도 되기를..

12월 29일로 모든 영어 클럽을 종료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지금까지의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클럽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많이 온 덕분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피드백 뿐 아니라 우리의 수업이 조금 어려워 오지 못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유스들의 마음을 전해 받는 동시에, 꾸준히 와 주고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유스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응원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



| 청소년 캠프 준비 |

수원 YMCA 청소년 캠프 '아토테나'의 호스트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

· 2015년 1월 6일부터 13일, 일주일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크게 초등학교 화장실 짓기와 빈곤퇴치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 번 캠프에서는 아띠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버섯집 만들기나 닭장 짓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 해에는 아띠들 활동지역의 일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 스태프 Mr meng에게 마을에 있는 학교의 화장실 증설이나 벽화 작업을 추천 받아 둘 중 하나를 진행하려고 했다.

· 해당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는 캠프 기간이 짧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벽화 작업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 방문했을 때 500 여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주변에 계신 농부님들까지 단 1개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무엇보다 화장실 증설 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현지 상황과 요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캠프 참가자 친구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화장실 증설 작업으로 결정했다.

· 빈곤퇴치캠페인은 우리 마을 알아가기와 캠프 친구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마을 알아가기는 12기 라온아띠 국내훈련에서 했던 지도게임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마을지도를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주일이라도 내가 사는 마을을 안다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캠프를 마치고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도 스스로 마을에 대해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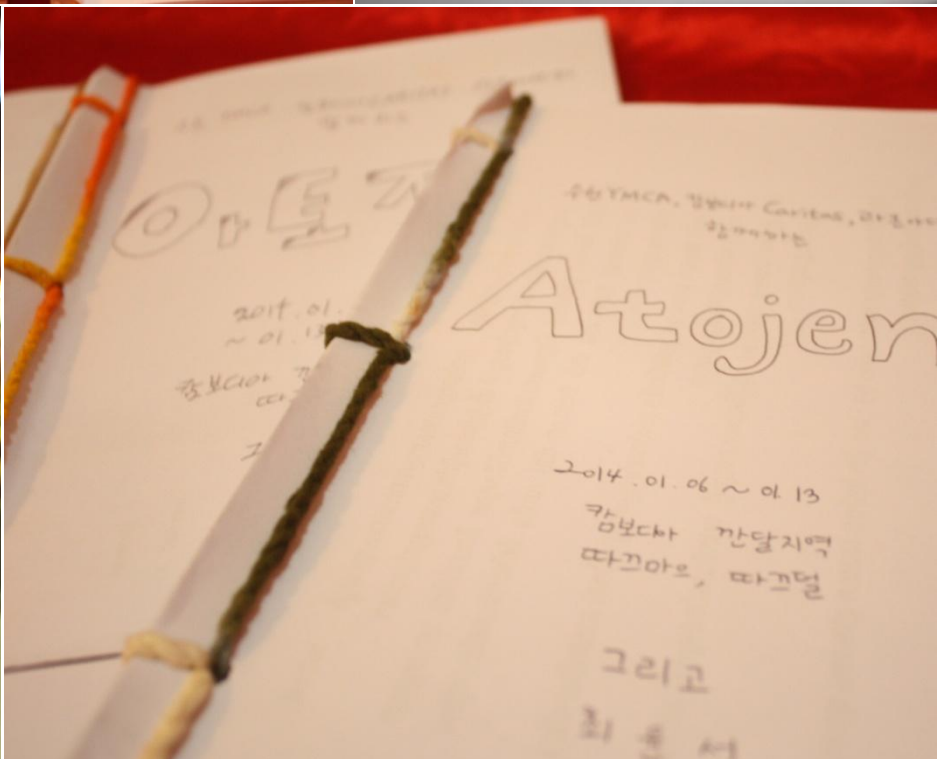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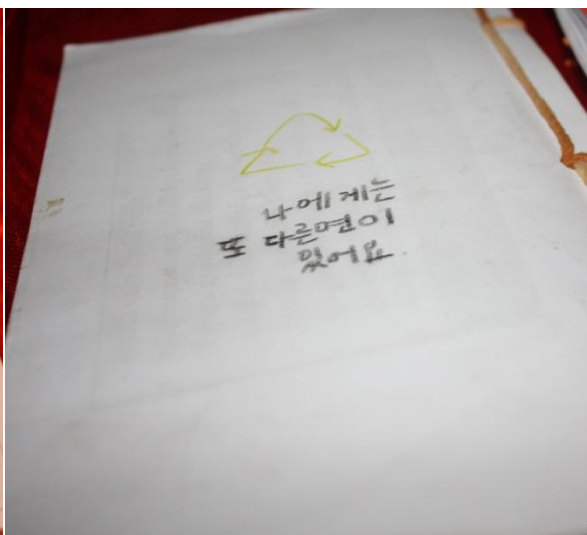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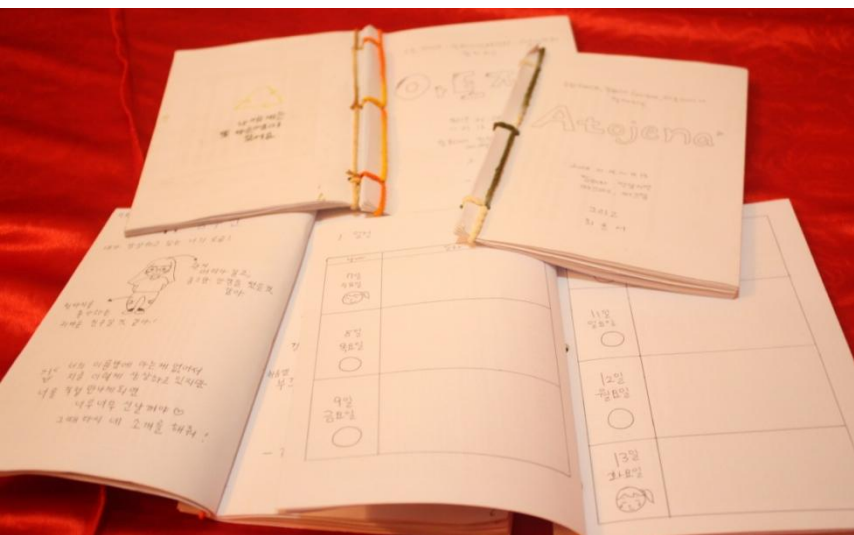


그리고 두 번째 빈곤퇴치캠페인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캠프 친구들끼리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획하는 것인데 어떤 다양한 생각과 재미있는 기획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캠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북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었다 소문이 날까 생각하다, 그 동안 카리타스에서 모아온 이면지를 이용해 공책을 만들고 내용도 손으로 직접 쓰기로 했다. 하지만 굉장히 정성스러워 보이는 이 워크북의 컨셉은 불친절이라는 거~

캠프기간 동안만 보고 마는 책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보면 추억이 되는 워크북이 좋을 것 같아 스케줄도 표만 그려놓고 프로그램들도 제목만 써놓고 자기가 직접 채워 넣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문화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캄보디아라는 나라, 따끄마을이라는 마을에 녹아들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 좋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이 기획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마을과 캄보디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부록 #3 전기수와의 만남

한국인 아니 외국인이라고 우리 다섯 명뿐인 따기마우에 한국인이 무려 두 명이나 찾아왔다 우리가 자주 사먹는 연유키퍼를 테이크아웃 해서 먹고 옆 집 아주머니를 소개해주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캄부디아식 국수를 같이 사먹었다 이렇게 우리 일상으로 초대해 함께한 그녀가 메일을 한 통 부내왔다. 부귀서에 신기를 흔쾌히 허락해주 그녀에게 감사!!!

캄 아띠 12기, 동동, 미미, 윤, 이니, 프렙썬에게

쑤어쓰다이^^

캄 아띠 2기, 가영입니다.

오예!! 바탕방에 잘 도착했어요~이른 새벽 일어나서 아띠 12기가 맥어준(?) 꾸이띠우 덕분인지 힘이 쑥쑥 나네요ㅋㅋㅋ

다리를 절뚝이며 속소 로비로 찾아와 준 미미,
맛있는 점심 메뉴를 선정하기 위해 장부(ㅋㅋㅋ)까지 챙겨 성심성의껏 메뉴를 선택하던 썬뻑,
메일로 꾸준히 소통해 주고 까리따 곳곳을 소개한 성실한 동동,
캄 과일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직접 밀크프룻(?)을 썰어 맛보여 주던 이니,
늘 먹던 걸로 먹지만 가끔 바꾸기도 하면서 꼼꼼히 이야기를 들려주던 윤!!

이 매력 첼첼 넘치는 다섯 명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쨌든 짜란~나승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루 하루가 다시는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이нде도
살다 보면 그 사실을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라운아띠는 그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기에 지나간 날들, 그리고 남은 날들을 짜꾸만 헤아리게 되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내게 라운아띠는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네요.
캄에서 자주 듣는다는 flexible처럼 유동적인 시간의 연속선 상에 라운아띠와 살고 있네요.

아마 느꼈겠지만 나는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짧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내가 워낙 느린 사람이라 아쉬움이 남네요. 한국에서 봐요~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같은 활동을 했었다면 연락을 했을 때 마음 열고 받아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아띠들을 만나고 싶고 그저 기관을 가서 느껴보고 싶다는 내 욕심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기관을 방문하고 아띠들에게 연락한 것이었기에 망설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아띠들을 꼭 만나고 싶었고,
인터넷이나 신문, 블로그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까리따스를 경험하고 싶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네요.
내가 말할 때마다 "난 아띠 때 이런 경험들 했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하는 말들이 혹시 내 자랑처럼 되진 않을까
비교치가 되진 않을까, 부담이 되진 않을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저 몇 년 먼저 다녀갔던 사람일 뿐인데 정말 '꼰대' 같은 선택(사실 선택이란 말은 별로 쓰고 싶진 않아요ㅋㅋ)처럼 될까봐 괜스리 걱정을 했어요.
게다가 얼마까지 함께하여 더욱 편하지 않은 자리였을텐데도
살뜰하게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세심한 아띠들^^
엄마의 수다수다에 적절한 리액션을 해준 그대들에게 무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하트를 보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이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게 우린 서로를 모르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라운아띠'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만나 알 수 있게 된 이 인연이 참 기뻐요.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다시 열어주는 새로운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구요.

덕분에 깐달의 '따기마우'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알게 되어 신납니다.

캄에서의 생활도 한국에서의 생활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응원할게요. 쑤쑤~

CDP활동 |

지난달에 했던 작업을 이어서 이어이용네 집 하이드로포닉을 진행했고 더불어 센터 내 머쉬룸하우스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 따웃마 마을 / 수경재배틀 건축 작업 :

이제는 어느 정도 하이드로포닉 작업에 능숙해지기도 했고 중간엔 유스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날도 있어 더욱 파이팅 있게 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자제 조달 문제로 일이 더디게 진행되어 이번 달은 3일정도만 작업을 해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 새로운 고민

10월 한 달 내도록 진행되었던 쓰라이요웅 마을의

간볼 아저씨네 Hydroponic 수경재배에서 자라고 있던 싹앗에 해충들이 출몰하여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이라 수시로 확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1Kg도 수확하지 못했다. 우리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카리타스 센터 측에 보고를 하였다.

다음달 Mr. meng과 함께 둘러보고 대책을 세워 보겠지만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 카리타스센터 / 머쉬룸 하우스(버섯집) 설치 작업 : 마을에서와는 달리 센터내의 작업은 팀원들 말고도 스테프와 유스들이 도와주는 날이 많기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머쉬룸 하우스 작업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카리타스 일원 모두의 일이 될 수 있음으로 미안함보다는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재미를 즐기기로 했다.



< 버섯집 만들기 작업 순서 >

- ㉠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버섯집을 만들기 위한 터를 잡습니다.
- ㉡ 기둥 및 틀을 잡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 ㉢ 시멘트를 굳히기 위해 설치했던 틀을 제거합니다.
- ㉣ 지붕 틀을 만들고, 바나나 잎을 엮은 지붕을 지붕 틀에 묶어 지붕을 완성합니다.
- ㉤ To be continue... On the next month

사진 속 다른 부분 찾기



이제 캄보디아에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어느덧 겨울이 로군요. 올 겨울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하이드로포닉(수경재배)을 완성하여 기쁜 마음으로 1월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 모여 앉아 완성할 궁리를 해볼까요? 하하하. 어쨌든 제가 언젠가는 이런 하이드로포닉을 3개쯤 마련하여, 제 뿌듯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함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진 속의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기로 할까요? 두 장의 사진 속에는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럴 듯 다른 한 군데와 쌍뿔맞은 두 군데, 정말 찾기 힘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두 쑤쑤! (쑤쑤=힘내)

문제 출제 **이여인**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 바탐방 지역 방문 |

바탐방지역의 카리타스 이외에 NGO단체들을 방문함.



· 바탐방 CARITAS:

- 크게 FVSD와 CD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잠깐 인사만 나누고 나와서 활동을 둘러보진 못했다.

· FVSD(Friendly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for young women and young mother with children)센터:

- 바탐방 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센터인데 젊은 여성과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위한 유용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인력 착취나 성매매로부터 고통 받는 가난한 취약한 가정에 젊은 여성이나 아이를 가진 어린 어머니들이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능력을 증진시키고 인간으로써 가져야 하는 존엄성도 회복시킨다.

- 직업훈련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여성들의 아이들 돌봐주는 데이케어 센터까지 운영되고 있어 굉장히 선구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인상적이었다. 힘든 상황 속에도 자기계발 훈련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고 아이들도 한편으론 귀엽고 한편으론 안쓰러웠다.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단체와 스태프들의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 KnK 직업교육 센터:

- 아시아의 소외된 청년들을 보조하고 국제적 교류를 맺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의 목표는 '아시아의 아이들

의 교육과 친선' 그리고 '동반 성장'이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가정 직업 훈련, 공식 혹은 비공식적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도소의 미성년자 수감자들을 위해서도 교육, 직업 훈련,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라탄으로 가구를 만드는 것과 청소년 수감자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했고 특히 누에고치를 재배해 실크로 만들고 그 실크로 다시 천을 만들어 제품을 완성해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 Donbosco center:

- 초등학교 한 군데, 여자고등학교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구체적 수업 커리큘럼과 도덕교육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이 보기 좋았다. 예의바른 아이들의 모습과 이 훈련을 위해 3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인상 깊었다.

· BPK PTC 방문(꼬은 클라): 원래는 NGO 단체였으나 노동고용부 소속으로 농업에 초점을 맞추어 양식업 등에 관련된 단,장기 기술 훈련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 그리고 남은...

- 바탐방 명소 이야기: 껌뽕뿌에이 호수와 바난산의 경치에 감탄하면서도 한국의 명소처럼 '누구 왔다가' '누구 하트 누구' 등 낙서가 되어있는걸 보면서 안타까웠다.

- 바탐방 음식 이야기

돼지껍데기 튀김 - 손이 가요 손이 가 돼지껍데기 튀김에 손이 가 , 권희

눔꾸차이 - 튀김인 듯 고로케 같은 너 , 여인
 찹쌀떡같은 어떤 음식 - 찹쌀떡 모양에 속지 마라. 다신
 찹쌀떡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 태운

망고 - 죽어있던 미각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 심
 장을 울리는 맛. 코알랄라! , 동효

꾸이띠우 - 꾸이띠우는 사랑입니다 , 경미

- 바탐방 악어산 전설 이야기 : 권희 팀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악어산은 솜뽀으왕이 왕비와 이혼하고 새 왕비

를 들었는데 이전의 왕비가 샘이나서 마법으로 소톤 악
 어를 조종해 솜뽀으왕이 타고 있는 배와 싸우게 했다.
 소톤 악어가 배를 부셨다. 왕비는 이 악어를 기념하기
 위해 악어를 산으로 만들고 부서진 배도 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악어 산 맞은편 솜뽀으 왕이 타다가
 부서진 배 모양의 산이 위치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기관과 기관의 만남이라 이야기에 깊게
 참여를 못했지만 우리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며 어찌
 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히 같이
 간 스태프들과 함께 가서 더욱 가까워 진 시간이었다.



Back
to
school

My Stor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1981-1990



| End poverty campaign |

센터 내부에서는 나의 이야기 한 편을 진행했고 아시아 알아가기는 세 곳의 마을에서 진행했음



· 카리타스 센터 내 빈곤퇴치캠페인 < My story>:
이번 나의 이야기는 CDP스태프 **Mr. Meng**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단 한 장의 ppt를 통해 본인의 카리타스 유스, 졸업 후 카리타스 자원봉사자, 카리타스 인턴, 그리고 지금 CDP 프로그램 매니저가 된 시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스 친구들과 우리들 모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초 집중해서 들을 정도로 감동적인 내용과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 카리타스 유스 생활도 하셨기 때문인지 Mr. Meng의 이야기가 유스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와 닿았고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 지금까지 빈곤퇴치캠페인이 한 명의 강연자가 준비만 잘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 시작하기 20분전 간단한 세팅만 하는 등 점점 빈곤퇴치 준비를 소홀하게 되었다. 그러다 유스 친구 피에룸이 깜박하고 ppt를 준비를 못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우리 중 누구도 피에룸에게 그 전에 ppt를 준비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처할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성을 하며 급하게 빈곤퇴

치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 아시아 알아가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생각하다 YMCA 100주년 행사에서 라온아띠 부스가 진행했던 아시아 퀴즈 맞추기를 해보기로 했다. 퀴즈는 현재 12기 라온아띠가 파견된 7개국에 관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각 국 아띠들에게 연락을 해 퀴즈로 할 만한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해 만들었고 연락이 되지 않은 몇몇 팀의 퀴즈는 그 동안 올라왔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지도퍼즐을 만들어 파견국 7개국과 한국의 위치를 맞추는 게임도 준비했다. 우리의 갑작스런 요청에도 재미있고 신선한 문제를 내준 각국 아띠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 아시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하였는데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특히 할머니들이 문제를 맞추실 때마다 기뻐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아시아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었고 또 마을 사람들도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하시하 알하가기 문제

앞서 말했듯이 아시아 알하가기 문제를 지금 아시아에 살고 있는 12기 아피들에게 부탁을 해서 받았다. 태국은 국가에 관해서, 미얀마는 짜자 축제에 관해서, 티무르는 독립기념일에 관해서, 필리핀은 마누 뿌라는 예절에 관해서 부내주었고 바쁜 현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글라데쉬와 인도팀은 지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쉬는 독립전쟁에 관해서, 인도는 디왈리 축제에 관해서 문제를 냈다. 고마운 아피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아아 보고 싶다아아

តើម្ហូបនេះ ឈ្មោះ អ្វី ?



1 (១) បីដា 3 (៣) បីតា

2 (២) សតដា 4 (៤) គុយតា

ប្រទេសណាដែលស្រុកប្រទេសនេះ 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1 ប្រទេសចិន ៧៧:០០ លាននាក់

2 ប្រទេសឥណ្ឌា ១៣០០ លាននាក់

3 ប្រទេសអាមេរិក ៣៣០ លាននាក់

4 ប្រទេសប្រុយណេ ៤ លាននាក់

ប្រទេស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1. ១ ៣. ៣


2. ២ ៤. ៤

តើម្ហូប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ប្រទេស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1. ចិន 2. ប្រទេសឥណ្ឌា

3. ប្រទេសអាមេរិក 4. ប្រទេសប្រុយណេ

តើប្រទេស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ប្រទេស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1 ប្រទេសចិន ៧៧:០០ លាននាក់

2 ប្រទេសឥណ្ឌា ១៣០០ លាននាក់

3 ប្រទេសអាមេរិក ៣៣០ លាននាក់

4 ប្រទេសប្រុយណេ ៤ លាននាក់

តើប្រទេស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តើម្ហូបណាដែលមានប្រជាជនច្រើនបំផុត ?








부록 #5 유스들과 함께 한 시간

세계 인권의 날 in PhnomPenh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Youth 친구들과 툽툽을 나누어 타고 P.P로 출발하였다.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모습으로 장난치며 출발하였다. 그 곳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짜이요! (Victory)를 외치고 있었다. 정부에 대해 그 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정부의 무차별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이주 되는 원주민들, 주민들 그런 강제 이주로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버린 딸의 어머니의 절규 그리고 강제적인 정부의 탄압을 호소하는 사람들. 청년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용마저 규제하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프놈펜에서 아무런 시위조차 할 수 없는 이곳 캄보디아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인권의 날 행사, 대치 없이 무사히 마쳐

기사입력 : 2014년 12월 16일

지난 10일 프놈펜에서는 수천 명이 참가해 국제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정부와의 대치없이 무사히 잘 진행되었다. 전 프놈펜시에 걸쳐 개최된 행사는 부당하게 체포되었거나 고발된 인권운동가, 정치인, 시위 참가자,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강력히 언급했다. 일부는 라따나끼리에서 5일 동안 행진하며 걸어난 참가자도 있었다.

행진 참가 인파들은 10일 아침 국회 앞에 모여 위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자유공원에서 열린 집회의 연설가들은 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공원 내 커다란 텐트 아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연설을 듣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텐트에는 “우리는 사회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구호가 붙어있고 사람들은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는 인권 존중으로 이어진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캄보디아 인권행동 위원회(CHRAC)의 썩 삼 오운 회장은 이번 행사를 이용하여 임금 파업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일 발생한 최소 5명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조사 또는 기소하지 못한 사법부와 경찰의 행동을 상기시켰다.

인권의 날 오후, 프놈펜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맞은 편 강변서는 CNRP의 껌 쓰카 의원과 삼랑시 의원의 등장에 따라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성원을 보냈다. 삼랑시와 껌 쓰카는 소위 ‘병력 13’이라고 불리는 지난 달 체포 사건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캄보디아 내 처벌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연설했다.

삼랑시는 내년에는 야당의 방송국 개국에 대한 요구가 승인될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에서 여당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덜 편향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랑시는 2015년에 사람들이 National Rescue TV에 관심을 가질 것을 장담한다며 그들은 이전에 NEC의 변화를 위해 시위를 가졌고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슬기 번역정리

출처 :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캄보디아:날조된 혐의로 주거권 활동가에게 유죄선고

기사입력 : 2013년 1월 7일

활동가 옴 보파(Yorm Bopha)에게 3년의 금고형이 선고됐다. © Jenny Holligan

날조된 혐의로 기소된 주거권활동가 2명이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을 통해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과 법질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27일 아침 옴 보파(Yorm Bopha)는 ‘고의적인 폭력죄’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전날 오후 팀 사크모니(Tim Sakmony)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의 혐의 모두 날조된 것으로, 신뢰할만한 증거는 전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옴 보파는 예전에 프놈펜 병각호수였던 자신의 주거지가 강제퇴거를 당하자 주거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 곳에서는 2008년 이후 2만여 명이 강제퇴거 당했다.

팀 사크모니는 2012년 1월 자신이 살고 있던 프놈펜 지역 보레이 케일라(Borei Keila) 지역에서 300가구가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당한 데 항의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약속했던 대체 주거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같은 날 캄보디아의 사법부는 또 다시 큰 후퇴를 겪었다. 항소법원이 본 삼낭(Born Samnang)과 속 삼 오운(Sok Sam Ourn)의 20년형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4년 체아 비체아(Chea Vichea) 노동조합 위원장을 살인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강제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애버트 조사관은 “체아 비체아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법원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도 전혀 없고, 기소당한 두 명 모두 믿음만한 알리바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버트 조사관은 또한 “강제 자백과 증인 협박은 범죄 수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사람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15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실제 범인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발췌 :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캄보디아에서의 인권 유린: 캄보디아의 강제 이주

기사입력 : 2008년 2월 11일

“이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 난 내 7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비렉”과 그의 일곱 자녀들은 2007년 4월 20일 집을 잃어버렸다. 그 날, 캄보디아 해안 도시인 시하누크 빌 마타합 4의 대부분의 마을은 100가구 이상의 퇴거를 강요하는 법 집행기구들과 군대에 의해서 불탔다. 한달 뒤, 비렉은 길가에 방수천을 설치해서 살아가고 있다. 비렉과 비슷한 상황이 전국에 걸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토지 약탈, 토지 소유권 상실, 토지 분쟁은 더욱 많이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강제 이주를 당한 캄보디아의 수천 명의 희생자들처럼, 비렉과 그의 이웃들은 강제퇴거 전,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도 받지 못했다.

마을이 파괴되기 전에 근본적인 토지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국제 인권 기준은 강제 이주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캄보디아 공권력은 이를 어겼다.

캄보디아 정부는 피해자들의 집과 땅을 보호하려는 활동가들을 저지하고 목살하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하누크빌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수감되었다. 집을 잃은 후, 비렉의 이웃 13명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중 9명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단기간의 형을 살고 있다. 그들의 형이 끝났지만, 기소 청문회로 인한 자의적인 구금 때문에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천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은 계속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시하누크빌과 다른 도심지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들도 점차 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유엔은 강제 이주를 심각한 인권 침해라 본다.

모든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는 유엔 국제 연합의 공표는 캄보디아 정부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공표를 통해 유엔 국제 연합은 캄보디아 정부의 독단적인 토지 약탈, 소유권 상실, 그 밖의 여러 가지 토지 분쟁문제에 적절한 관심을 가질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빈곤층의 삶을 고루 발전 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발췌 :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부록 #6 350ppm 캄보디아비어 박스의 재탄생

본격 동심 파괴 동화 < 술 먹는 고래 >



옛날 옛날에 캄보디아 작은 마을에 술고래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술고래는 더운 날씨와 힘든 업무를 타하여 박스 채로 사놓고 매일 밤 캄보디아 비어를 마셨습니다.



북극곰이 어찌구 저찌구

하루.. 이틀.. 맛있는 캄보디아 비어는 마실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쓰레기가 남아 옆 방 빵순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 마신 맥주캔은 근처 가게에 팔 수라도 있었지만 박스는 처치곤란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시아 알자기 퀴즈 게임을 할 때 퍼즐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고래는 생각했습니다.
“박스를 재활용하면 지구도 지지고 빵순이한테도 당당할 수 있어!!”
그리고는 속삭속삭 똑똑똑똑 술고래는 멋진 지도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빵순이도 속으로 무척이나 놀랐지만
“한번 머리 썬 거 가지고 되게 뽕내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술고래는 밤마다 캄보디아 비어를 마시며 복수를 할 그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술고래가 속삭속삭 똑똑똑똑 멋진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빵순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순순히 술고래가 만든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술고래는 앞으로 더 흥청망청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

|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

크리스마스 전날, 종교적인 의미 보다는 카리타스 스태프와 유스들과 함께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작은 파티를 기획하여 몇몇 프로그램들을 진행함.



· 오후에는 깐달 카리타스 팔씨름 왕을 뽑는 자리를 마련해 유스들과 스태프들 아띠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 토너먼트식 경기를 진행했다. 권희 팀원이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뻔 하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스태프 **Mr. Samnang**이 권희단원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받은 상품도 자비롭게 유스들에게 나누고 사라지는 한편의 영웅드라마를 연출했다. 토너먼트 식이라 초반 승부에서 진 사람들은 계속 보고만 있어 아쉬웠는데 나중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대결하고 싶은 상대와 게임을 했고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

· 팔씨름이 끝나고는 부스를 설치해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한 노래와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포토존을 꾸몄다. 크리스마스 문화가 생소한 유스 친구들과 스태프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참여도가 저조해 아쉬움이 남았다.

· 해가 떨어질 무렵에는 다 같이 크리스마스의 결정판 ‘나홀로 집에’를 시청했다. 한국어 자막도, 크메르어 자막도 없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웃고 행복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에 옆 운동장에서는 마을 아이들과 미니운동회를 진행했다. 하얀 팀과 노란 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 줄넘기, 얼음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깊은 밤이 되어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가고……. 댄스파티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유스 친구들이 준비한 자리에 참석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간식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했다. 재밌는 시간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유스 친구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했다. 유스 친구들과 함께 기획했으면 더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았다.



부록 #7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몸도 마음도 배부른 크리스마스

으릭으리어이 본 크리스마스

처음 맞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게다가 불교국가인 이 캄보디아에서는 휴일도 아닌 이 날에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

다행히(?)도 우리는 카리타스 스텝인 피룸이 집(프놈펜)으로 초대해주셨고, 다같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먹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피룸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친한 스텝인 어담네 가족과 아침을 먹으려고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 준비했지만 이미 아침을 드셨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음식(잡채)을 준비해서 나눠 드렸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던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피룸의 집으로 출발.

유스 친구 2명과 피룸, 그리고 바탐방에서 만났던 FVSD 스텝이었던 김랭까지 우리가 도착한 순간 벌써 분주히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도 한국 음식인 잡채와 과전을 준비해 캄보디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어우러지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음식이 모두 너무 맛있는 바람에 모두 배를 토닥이게 되었고, 같이 영화도

보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용했던 소품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대로 집에 가기 아쉬운 마음에 유스 친구들과 프놈펜 리버사이드로 향했고 강가를 둘러보며 가벼운 산보를 한 후 우리는 드림랜드에 가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라 비산 땀도 있고 놀이기구를 잘 타지 못하는 팀원, 피곤한 팀원도 있어 조금 망설여졌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랜드 입성! 처음엔 드림랜드 안을 둘러보며 가벼운 놀이기구로 시작해서 격한 놀이기구,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 관람차까지 두루두루 즐겨보았다. 특히 박동호 단원과 이어인 단원의 적극 추천으로 드림랜드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지만 프놈펜 야경, 드림랜드 야경을 볼 수 있는 기구를 타게 된 이권희 단원은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마음이 놀랐는지 진정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뱉어내었다. 하지만 놀이기구를 타며 보았던 프놈펜의 야경이!! 반짝 반짝한 야경을 보니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글 이어인 <freesiain3@gmail.com>



더불어 함께살기



| 이야기모임, Jam! |

잼은 즉석합주를 뜻한다. 즉석에서 각자의 연주가 모여 잼이 되듯, 팀원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뜻한다.

7차 잼(권희) : 서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는 시간.

잼장의 한마디:

우리가 처음 라온아띠에 합격하고 국내 훈련을 마친 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처럼 조금은 지쳐가고 있는 우리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남은 2개월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우리의 잼.

사실 Jam장(長)은 더 하고싶은 말들이 많았다. 이 곳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 또 우리가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면서 가족으로써 느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단점을 서로 고백하고 남은 2개월간 서로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꿈...

하지만 ‘단점’이라는 주제가 민감한 만큼 조심스레 제안했고 다행히도 팀원들의 흔쾌한 승락으로 솔직담백한 토크들이 쏟아졌다. 덕분에 우린 서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남은 2개월을 화이팅하는 자리가 되었다.

솔직하고 털털한 우리팀원들에게 소소한 박수를 보낸다.

8차 잼(동효) : 결혼식 스토리

잼장의 한마디: 언젠가 문득 든 생각, 나 결혼식에 누구 초대하지? (설레발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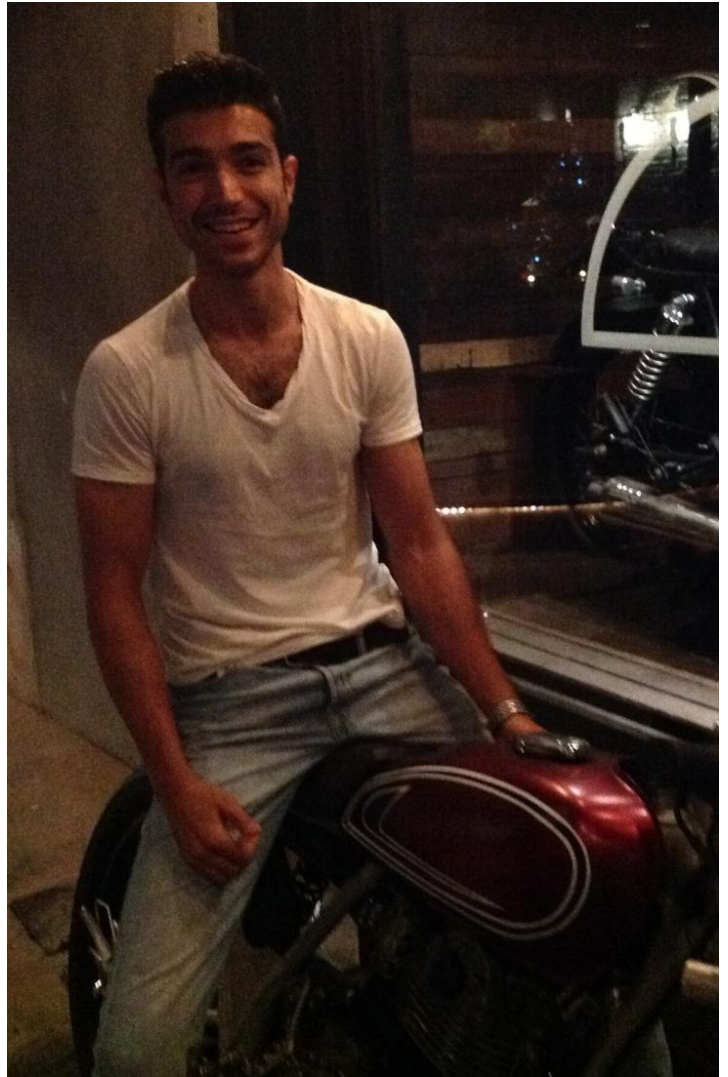
아무나 누구나 초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리스트를 작성 중

어느 날 갑자기 네 명이 동시에 리스트에 올라갔다! 그 네 명의 결혼식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우연도 인연이 되나요?

9월, 시엠립에서 깐달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 잘생긴 외국인 한 명을 만났다. 우리는 그의 이름은 마트(mat), 큰 키에 수염이 덩수룩함에도 서양의 풍미가 흠씬 풍기는 핸섬한 외모를 겸비한데다가 부모님 두 분 다 프랑스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덕분에 프랑스어와 영어를 고루 잘하며, 덩으로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아는 세련됨까지 겸비한 완벽한 그였다.

나(쌈뽕)는 차안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둘 다 농구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농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프놈펜에 내려 헤어지고 서로를 잊고 살던 12월의 어느 날, 프놈펜 거리를 걷던 도중에 툭툭에서 내리는 키 큰 외국인 한 명을 보았다. 마트였다. 그는 마침 내가 걷고 있던 곳에 있던 은행에 들려 돈을 뽑기 위해 툭툭에서 잠깐 내린 것이었고, 우리는 정말 우연히 재회하였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마트는 또다시 cool한 모습으로 다음에 술 한잔 하자며 좋은 곳에 데려가 준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23일 화요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트를 만나러 프놈펜으로 갔다. 마트는 캄보디아에서 3년 정도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프놈펜의 지리를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초대할 곳은 캄보디아라고 하면 믿기지가 않는 새로운 세계였다.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의자 없이 바 옆에 일어서서 맥주와 칵테일을 즐기는, 마치 미국의 화려한 스트릿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화장품 관련 일을 한다고 했다. 9월에 시엠립에 갔던 이유는 명상 수련? 을 위해서였고 1월이면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을 접고 베트남으로 간다고 했다. 우리는 마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참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 왜 계속 동남아에서 머무르며 일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동남아는 사업하기 좋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친구들이나 프랑스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돌아가고 싶지는 않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다. 그의 굳은 의지가 참 멋있었다. 마트는 우리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었는데, 꽤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팔고 있는 화장품들을 건네며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어차피 사업이 망했으니 괜찮다.”며 시크하게 웃었다.



마트의 집에서 나온 우리는 마트가 이끄는 대로 어디론가 이동했다. ‘프놈펜 타워’ 라는 곳이었는데 22층의 높은 건물 옥상에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였다. 경치도 경치고, 메뉴들도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가격이 꽤나쌌다. 그런 부담스러운 곳에서 많은 음료를 시키기가 좀 그래서 계속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다. 하지만 유쾌한 마트 덕분에 분위기가 잘 풀렸다.

그는 영국에서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였는데, 영화 ‘박하사탕’ 과 극중 대사 “나 다시 돌아갈래.”를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충격이었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마트가 직원에게 영수증 사이에 달러를 끼워서 주었다. 그 날 맥주와 치킨, 프놈펜 타워에서 나온 돈을 마트가 모두 계산한 것이다. 우리가 계속 미

안해하자. 마트는 “다음에 내가 한국가면 너희들이 계산해.” 라며 또다시 시크하게 웃었다.

마트, 그는 참 멋진 청년이다. 차 안에서 아주 잠깐 만난 우리들을 계속 기억해주고, 또 프놈펜에서 아주 우연히 마주친 우리들에게 계속 연락도 해주며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마트가 계속 돈을 내서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딱히 그가 돈 자랑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자신이 잘 사는 나라에 살아 더 낸다는 뜻도 없어 보였다. 그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친절한 것이었고, 그저 시크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한 것일 뿐이다. 그가 털털하게 웃으며 베푸는 것들을 받으며 참 고맙고 느끼는 게 많은 시간이었다.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힘, 그게 진짜 멋진 사람만이 가지는 능력이 아닐까?

Kep

유명한 해변에 가서 외국인들과 휴가를 즐기보다는
조용하고 평온히 한 해를 되돌아보는 휴가를 즐기고 싶었던 우리는
현지인들에게 물어 물어 Kep(카엵)이라는 조용한 해안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연말이라 새해를 맞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어서 우리가 원했던
평온한 휴가는 되지 못 했던 것 같다.
역시나 흥이 정말 많으신 캄보디아 분들... 밤늦게 까지 음악을 크게 트시고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모습에 감탄을 그치지 못했다
2015년 새해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 섬을 거닐던 우리는
처참한 파티의 흔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시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해주었던
2박3일간의 우리의 여행!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최고 음식 경연대회



“늘 먹던 메뉴로”라는 말을 많이 쓴다. 팀원들이 모두 알만한 최고의 요리가 있다. 그것을 바로 ‘륙락!’ 같이 식사를 해본 스럽들까지 알 정도로 육락(특히 소고기 메뉴)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고기를 양념과 같이 익혀내는 이 메뉴에는 늘 양파와 상추가 밑에 깔려있고, 소고기와 양파를 같이 입안에 넣었을 때,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 “칭안!(맛있다!) 늘 먹던 메뉴인 육락이 최고의 음식이라 한다.



문화충격을 안겨주었던 음식이 있었다. 그 음식은 이름하야 ‘놈 트나웃!’ 처음엔 술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빵은 시장에 갈 때마다, 계속 찾게 되는 메뉴가 되었고, 9월엔 마을을 지나다니며 판매하던 아줌마께 놈 트나웃을 사 먹었지만 언제부턴가 아주머니가 없어지고 놈트나웃얌이에 허덕이다 결국.. 꿈에서 놈 트나웃과 춤을 추는 꿈을 꾸었사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캄보디아’ 지. 현지 음식을 잘 먹어 어떤 음식을 최고의 음식으로 꼽아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은 입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 캄보디아 맥주! 매일 매일 한잔, 한잔 반주를 즐긴다. 역시나 술이 술술. 한국 맥주보다 더 맛있고 시원하게 목구멍을 뚫어주는 보리의 맛! 크으!!! 지금도 한 잔 하러 갑니다.



밥보다도 놈빵(바게트)에 연유를 발라먹는 걸 더 좋아한다. 놈 빵 사람은 연장되어 놈빵따삿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사실 싫어하는 걸 싫다고 잘 말하는 그녀는 놈빵따삿에 들어가는 찌도 빼고 파파야도 싫어서 꼭 빼달라고 말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에 놓여있지만 주문의 어려움도 극복할 만큼 가치있고 그만큼 맛있어 먹을 때마다 감동이 온다. 이 ‘놈빵따삿’을 사랑하지 않을 이 누가 있으랴?



여태껏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나보지 못했었다. 다 잘먹긴 하지만 특별히 유난스럽게 좋아하는 음식은 없었다. 카업 계시장에서 먹었던 후추와 함께 요리된 게 요리를 먹는 순간! 환상적인 마법 같은 맛에 폭 빠져버렸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또 균침을 다신다. 먹는 순간에 왜 사람은 먹었던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라는 자책도 하고 절대 미각을 갖지 못한 것에 후회도 할 정도로 맛있다.



그대들의 이야기



내 친구의 발을 소개합니다. (내친발소)



프렘소밭

과거에 빙판 좀 달렸던 그의 발은 작고 단단하다. 항상 양말을 신고 다녀서 그런지 피부색에 비해 하얀 편이지만 발바닥에 툭툭이 있는 굳은살들은 그의 고된 삶을 보여준다. 아... 삶이며 때 묻은 발을 보면 안쓰러워야 하는데, 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가. 고된 삶은 아름다움도 추함도 아니고, 그저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동으로 세상을 뜨겁게 물들였다.

쌈뭇

간달 팀에서 가장 큰 발이라서 그런지 웬지 모두에게 자주 밟힌다. 통각 세포가 유난히 밀집된 탓인지 엄살이라 오해를 사기도 한다. 자주 밟혀서 그런지 상처가 많은 그의 발. 발이 큰 만큼 발톱 또한 커 9월엔 황금 발톱으로 따끄덜 마을에서 유명세를 탔다. 게다가 복숭아씨는 복숭아인가 싶을 정도로 크대!

둥둥

그녀의 피가 짙고 깨끗해서인지 술한 모기떼의 공격으로 별집이 되어버린 그녀의 발. 회복되지 않은 그녀의 발을 보면서 그녀는 오늘도 한숨을 내뿜는다. 하지만 상처가 두 고두고 없어지지 않아 한국에서도 발을 보며 캄보디아를 추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발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나...

이니

우리 중 가장 조그맣고 귀여운 그녀의 발. 한국 사람에게도, 캄보디아 사람에게도 빵빵 터지는 농담이 있다면 바로 그녀의 발이다. 샌들 모양 그대로 타 버린 그녀의 발은, 그녀가 사랑해 마지않는 카페 특 더꼬 흥뜨꺼(커피와 연유를 섞어 마실)를 연상시킨다. 사랑하면 닦게 되나요?

미미

그녀의 삶과 철학이 그녀의 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요. 맨발로 걷기를 좋아하는 그녀의 발에 묻은 흙, 꽃잎, 곤충이 그녀의 신발이 되고 또 그 흙에서, 꽃에서, 곤충들에게서 나는 향이 그녀의 향이 된다고. 아 아 울퉁불퉁 자갈밭도 딱딱한 시멘트바닥도 그녀 발 밑에서는 고운 모래밭이 된다고.



여인

4개월 차.

어쩔 수 없이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는 12월.

9월, 10월에 벌써 갈 날짜를 계산하냐고 친구들에게 구박하던 나조차도 이제 갈 날을 손꼽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게 행복해서도 아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후회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더 즐겁게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캄보디아에서의 생활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떠나야 하는 시간,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4개월차에야 한국이 그리워졌다.

행복할 것만 같던 캄보디아 생활도, 행복할 수만은 없었다. 때론 다투고 때론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여태껏 비슷하게 싸워오고 비슷하게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것만 같은데 이제야 겨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각자가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좁아져서, 좀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며 넓은 마음으로 받아 줄 수가 없었다.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직도 내가 속 좁은 사람임을 안다.

어쩌면 서로를 아직 모른다는 게 축복이고, 어쩌면 서로를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서로 달라서 불행하고, 서로 달라서 행복하다.



태운

마지막이 다가온다. 처음 라온아띠를 시작했을 때의 다짐들은 어느새 추억이 되고, 나는 또다시 내가 바꾸고 싶었던 모습들을 품은 채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라온아띠를 오기 전 바꾸고 싶던 나의 모습들 게으름, 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열심히 하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라온아띠를 하면서 저절로 바뀔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바뀌지는 않았고, 나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나를 깎아 내리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요즘 한 팀원이 자주 쓰는 말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환경, 교육, 인간관계 등은 사람이 변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이 바뀌려는 의지, 노력이 없다면 자신이 기대하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낀다.

라온아띠는 나에게 환경적, 교육적, 인간관계적인 변화를 많이 주었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마음가짐을 바꿔주지는 못한 것 같다. 그게 내 탓일 수도 있고, 라온아띠의 한계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난 5개월간 변하지 못했고, 캄보디아에서 한 살을 더 먹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어른스러움에 대해 꽤 오랫동안 생각하다보면 내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바뀌지 않았어도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갔던 곳, 내가 본 것들이 많아졌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너 자신을 바꿔라." 나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에 굴복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 같다. 물론 자신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만 바꾼다고 해서 자신의 주변까지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의 세상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5개월 동안 김태운은 변하지 않았지만, 김태운의 주변은 변했다.
나는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다.



귀
영

귀국단원이 라온아피는 제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와 닿지 않았다.
라온아피는 그냥 국제자원활동인데?

아 이제야 알았다. 그냥이 아니구나.
나도 그 괴롭고도 끝없는 의미찾기 버스에 올라탔구나.

시가 거의 유행가처럼 되어버린 곳에서
때로는 언어 이외의 것으로 울고 싶어진다
그 시인처럼 나도
당신에게 이 글 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경미

12월 31일을 바닷가에서 보냈다. 일부러 유명한 곳을 두고 가깝고 조용하다는 이곳에 왔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쓰레기도 너무 많다. 소리도 너무 많고, 말도 너무 많고, 음악도 너무 많다. 미러볼까지 달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꽃 놀이를 구경했다. 불꽃 놀이라는 것은 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냈을까? 예쁜 게 참 시리다. 밤의 바다에서 파도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요란하지만 사실 별보다 작고 흐리다. 암만 해도 별을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었나 싶다.

지금 내가, 아주 오래 맘에 품고 고민한, 순간순간 나를 에리고 아프게 한 것을 헤집고 꺼내어 겨우 고백하자면, 나- 스무살에 라온아피 한 것을 후회했다.

라온아피 에세이에 적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인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적어본다. 단 한번도 라온아피를 후회한 적은 없지만, 스무살이어야 했나 후회해봤다.

좀 더 단단해져라든지 너무 여러다든지 하는 말들을 자주 들으며, 내가 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보고 느끼는 게 아주 달랐을 거란 생각을 했다. 국제 자원 활동이나 발전학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나에게 깊이가 있다면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느끼고 이곳에 더 도움이 되었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스무살 중반쯤 되어서 왔다면 국내 훈련때부터 만난 모든 사람들, 다른 팀 언니 오빠들, 우리 팀원들까지 모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당시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만큼 좁고 작은 사람인 내가 벌써 왜 이 길에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날 뿔었던 면접관님이, 아니 사무국, 혹은 당장 우리 엄마가 물어도 나는 거짓으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스무살에 이곳에 와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다.
스무살에 라온아피를 한 것을 후회하지만, 스무살에 라온아피를 해서 행복했다.

그러니, 이제 이 생각은 조금 내려두고자 한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다시 꺼내어 보이고 고백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었던, 내가 주는 상처를 돌보고 싶다. 그러고 싶다.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던 이 생각을 드디어 글로 적기 시작한 12월 끝 무렵 어느 밤부터,
스무 한 살이 된 1월 1일 글을 마칩.



권희

우리의 할머니는 날 정말 예뻐해 주신다.
 자주 뵈지는 못하지만 김장철이나 명절에 꼭 찾아뵈는다.
 그럴때면 항상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 좋아하는 수육이다 하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또 꼭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덩석 내 손에 남은 고기를 쥐어주시며 '집에 가서 또 무라이~ 단디가고!' 하며 손 흔들어 주신다.
 그런 할머니를 난 정말 사랑한다.

난 이곳 캄보디아에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분이 더 계신다.
 매일 아침 안녕을 물어 주시는 우리 집 주인 할머니,
 나를 보면 손부터 덩석 잡아주시며 꼭 안아주시는 용 할머니
 맛있는 먹을 것을 내다 주시고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는 모습에
 사소하게 지나간 말로 한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도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나는 또 한번 사랑 받고 있음을 느끼고 난 이분들을 우리 할머니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난 감성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인 성격에
 처음에 이곳에 와서 내가 과연 사랑 받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난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활한지 4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었다.
 한 팀원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기 전까지는.

팀원은 나에게 '신티 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무슨 말일까 싶겠지만 나는 저 말로 내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다.

나는 내 자신을 믿지 못했고, 내 자신을 불신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요즘 부쩍 행복한 나날이 늘어난다.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 너무 안타깝다
 남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하고 돌아가길 바라며..

그리고 남은 이야기



나의 역할

My position

내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망치질, 톱질, 땅파기.. CDP활동은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몇몇 팀원들은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다.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는 정신적인 피로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서툰 망치질이 모여 수경재배틀은 벌써 3개나 완성해 가고 버섯집도 추가로 만들고 있다.



우선 순위

Priority

선(先)선택 후(後)고민

바탐방을 가는 일정에 우리는 예정된 아띠워크를 미루고 바탐방으로 갔다. 피에룸이 빈곤퇴치캠페인을 준비 못했다고 말했다. 을 때 우리는 캠페인을 미루고 센터 내 버섯 집 만들기 작업을 했다. 우리는 선택을 했지만 돌아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선택 결과의 옳고 그름보다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선불리 판단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 달이 남은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우리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관계

Relationship

너에게 무언가가 되고 싶다.

언젠가 티위의 초대로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대접해 준 것이 고마워 우리도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사왔다. 정말 고마운 마음에 그런 건데 왠지 돈 많은 외국인이 돈으로 마음을 표현한 기분이 들었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셔도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현지인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돈을 아무렇지 않게 내는 사람처럼 보일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카리타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놀러 갈 때 마다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돈 많은 외국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냥 똑같은 친구로 밥 먹고 놀고 웃고 떠들고 싶다.



자발성

Spontaneity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카리타스에서 우리가 기획한 일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일이다. 수업도 빈곤퇴치캠페인도 클럽도 매주 매달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데도 매번 카리타스를 휘젓고 다니며 홍보를 해야 한다. 빈곤퇴치캠페인도 '오늘 누구의 이야기야?' 라고 물어봐주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유스 친구들을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 주도로 기획해 유스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우리가 유스 친구들을 위한다고 했던 것도 결국 우리 생각일 뿐...



내 청춘의 영원한, 최승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 툇킨그림찾기 정답

